

한라포커스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무엇을 담았나

“현 시설론 2055년 항공수요 처리 불가능”

“2055년 4108만... 지체 발생·서비스 수준 하락”
시설규모 최적화, 환경훼손·소음 최소화 등 제시
주변 상생발전 위한 공항경제권·물류단지 등 조성
국토부, 6월까지 기본계획 용역 완료·고시 예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제2공항 용역 중간보고서는 항공 수요예측과 활주로 및 시설배치 계획, 공역 및 비행절차 검토, 주민상생방안을 담았다.

국토부는 우선 현 제주국제공항의 문제점으로 전세기 공항 중 가장 혼잡한 공항, 제주-김포 노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노선, 섬이란 특성상 기상악화시 교통마비로 육지와 단절 등을 꼽았다.

제주특별자치도 항공수요는 오는 2026년 3440만명, 2030년 3569만명, 2035년 3697만명, 2040년 3833만명, 2045년 3890만명, 2050년 3974만명, 2055년 4108만명으로 예측했다.

전 세계 약 4130여개 공항 중 동권역 항공수요를 분담하고 있는 공항은 252개소이며, 55개 국가 102개 도시에서 2개이상 공항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국제공항 시설로는 장래 항공수요(4100만명/년) 처리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지체발생·여객서비스 수준 저하 등의 문제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제2공항 건설기분방향으로 순수민간공항 건설·시설규모 최적화·효율적 시설배치·환경훼손 및 소음 최소화·이용객 편리성 극대화·저비용항공사(LCC)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활주로 및 시설배치는 항공기 소음·편입가구수·자연환경성 등 각 항목별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정했고, 종합 분석결과 원안이 주로 활주로 배치대안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

주민상생방안으로 토지보상은 취득·사용·사용토지 매수청구·잔여지의 손실·잔여지 등 매수 및 수용청구로 구분해 보상하고, 일반적으로 공사시지거나 인근 유사토지 지료·임대료·사용기간에 따라 차등 보상할 계획임을 제시했다.

제2공항 건설로 생활 근거지를 잃게 되는 도민들을 위해서는 이주대책

수립,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 보상,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이주정착금 지급을 명시했다.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책으로 영업손실과 이전비용, 농업손실, 휴직·실직 근로자 임금 손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보상 등을 제시했다.

주민지원 방안(안)으로는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공항경제권 구상, 지역특화산업 및 물류단지 조성, 농어촌개발 및 유통산업 활성화, 주민소득증대 및 소득창출지원 등을 담았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 논의사항 등을 포함해 오는 6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지역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고대로그기자

제주개발공사, 주민참여예산 전격 도입

사회공헌 분야 등 대상
6월 30일까지 사업 공모

제주개발공사(사장 오경수)가 제주도내 공기업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며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JPDC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분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사회

공헌사업 등이다.

신청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제주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근무자 등이면 가능하다. 접수는 온라인(www.jpdc.co.kr)이나 우편(제주시 첨단로 330)으로 할 수 있다.

공사는 제안서를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서 사업성 검토과정과 구체화 과정을 거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2020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사는 예산 규모 및 사업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모기간도 연중 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스마트시티 구현 핵심기술은 블록체인”

원 지사, 24일 ‘블록체인 테크 서밋’ 참석·발표

원희룡 제주지사는 24일 서울 역삼포스코타워에서 열린 ‘블록체인 테크 앤 비즈니스 서밋(Tech&Business Summit) 2019’에서 ‘스마트도시의 미래, 블록체인에 달려있다’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블록체인은 스마트시티 구현의 핵심 기술”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도는 스마트 아일랜드의 비전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원 지사는 이날 “스마트 도시를 기술을 활용해 물리적 기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만 정의하고 접근하는 것은 협소하고 과도한 단순화”라면서 “스마트 도시는 발전과 보전이라는 상충된 가치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해결책이라는 관점에서 제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 도시의 핵심자원은 데이터”라며 “모든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기회 창출은 극대화하고, 과밀화에 의한 도시문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한 블록체인이 신분인증과 투표, 다양한 이력관리, 에너지 개인간 거래 등 스마트시티의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시티와 개인정보보호 간의 가치 충돌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데이터의 보호와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유일한 기술은 블록체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류를 촉진하고 시민들 사이의 신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대로그기자 bigroad@ihalla.com

“여성 인재를 찾습니다” 도, 신규 인재 발굴 착수

제주자치도는 여성 대표성 제고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구축·운영하고 있는 제주여성 인재풀 ‘제주여성인재 DB’에 등재를 위한 신규 인재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도내·외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능한 제주여성 인재를 발굴해 도정의 각 분야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균형 있는 참여 보장·확대 및 다양성을 강화한 행정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도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여성 인재 신규자원 집중 발굴 기간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운영해 여성인재풀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인재 DB 등재 신청이나 추천은 제주도 홈페이지(http://www.jeu.go.kr)에서 ‘제주여성 인재 등



“세계지질공원 트레일로 초대합니다” ‘2019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수월봉 트레일’ 행사가 25일부터 28일까지 한경면 수월봉 일대에서 펼쳐진다. 트레일은 수월봉 영알길, 당산봉, 차귀도 등 3개 코스에서 이뤄진다. 사진은 트레일 행사장 입구에 세워진 아치. 강희만기자

록하기’ 콘텐츠를 통해 본인이 직접 가입하거나, 전화(064-710-6553), 팩스(064-710-6519), 이메일

(gkstmf00@korea.kr)을 통해 신청 또는 추천하면 된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여성인재

DB를 구축해 현재까지 제주출신 전문 여성인재 1600여명을 등록 관리·운영하고 있다. 고대로그기자

제주네비게이션 AS센터
블랙박스 점검센터
(본축사거리에서 바닷가 방향 세계로마트 내)
블랙박스 4채널 장착가능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가능
☎ 711-6544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제주 삼다수

물만큼 큰 삼다수로 산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PROVINCE DEVELOPMENT CO.